

2025 AUGUST 8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1 COVER

제63회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시작

02 FOCUS

적정 보건으로 인력 기준
마련 '의무화' 추진에 있
어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
은 적정한가?

06 INTERVIEW

차경호 명예학회장을
만나다

제511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사전등록 시작! - 연장 기간 없이 마감 예정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산업의 도시, 고래의 도시 울산에서 개최되는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이하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을 시작했다. 사전등록 기간은 7월 21일(월)부터 9월 12일(금) 23시 59분까지로 안내된 **사전등록기간 이외에 추가 연장등록은 진행하지 않는다.**

'정확한 진단과 미래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은 임상병리사'를 주제로 한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현장 대면 교육으로만 진행된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4평점(4시간) 또는 8평점(8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결제가 가능하다. (단, 모바일 결제는 불가)

홈페이지 ->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신청 -> [중앙회]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한편,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점심도시락이 제공되며 울산역과 UECO 간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단, UECO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9월 20일(토)

학술 프리뷰룸 :204호

시간	1층		로비	2층			3층	시간	
	전시장			정확한 진단과 미래 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시작					
	부스	포스터 행사장		VIP Board Room	101+102+103(120)	201호(93)			202호(117)
09:00 - 10:00	부스전시	포스터 전시	국대표단 회의	국대표단 회의	연구정책과제 심포지엄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아동인권과 학대예방, 아동학대)		대한임상병리사과학회 심포지엄 대한임상병리사과학회지 우수논문발표 및 시상	09:00 - 10:00
10:00 - 11:00					임상면역검사학회 심포지엄	조직세포 검사학회 심포지엄	미래융합 심포지엄		10:00 - 11:00
11:00 - 12:00					임상화학 검사학회 심포지엄				11:00 - 12:00
12:00 - 13:00		국제포스터 발표	정식	국대표단 회의	광주시회 국제심포지엄	정식		12:00 - 13:00	
13:00 - 14:00	국제 학생 미팅 페스티벌		국대표단 회의	국대표단 회의	공중보건 검사학회 심포지엄	임상핵의학 검사학회 심포지엄	임상검사정보학회 심포지엄	협회 정책 심포지엄	13:00 - 14:00
14:00 - 15:00	커피타임 (14:30-15:00)	국제 학생 포스터 발표		대한진단검사정보관리 협회 심포지엄	임상수혈 검사학회 심포지엄	임상유전 검사학회 심포지엄	임상생리 검사학회 심포지엄		14:00 - 15:00
15:00 - 16:00	부스전시	포스터 전시	개회식(3층 컨벤션홀)						15:00 - 16:00
16:00 - 17:00									16:00 - 17:00
17:00 - 18:00	Keynote speech : 장립에서 미래로 :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60년 역사 & Plenary Lecture : 변화 속의 변하지 않는 가치: 미래 임상병리사를 위한 지혜								17:00 - 18:00
18:00-19:00	미팅페스티벌 (1층 전시장)								18:00-19:00

9월 21일(일)

학술 프리뷰룸 :204호

시간	1층			로비	2층			시간	
	전시장				정확한 진단과 미래 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시작				
	부스	헬스케어 심포지엄	포스터 행사		VIP Board Room	101+102+103(120)	201(93)		202(117)
09:00-10:00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아동인권과 학대예방, 아동학대)	주제 심포지엄 I			09:00-10:00
10:00-11:00		생리검사 헬스케어 심포지엄	포스터 전시	국대표단 회의	대한진단검사정보관리 협회 심포지엄	임상미생물 검사학회 심포지엄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학회 심포지엄	중소병의원 발전 위원회 심포지엄	10:00-11:00
11:00-12:00									11:00-12:00
12:00-13:00				학술대회 접수		정식			12:00-13:00
13:00-14:00	부스전시		국내포스터 발표			임상혈액 검사학회 심포지엄	실무연수강좌		13:00-14:00
14:00-15:00				국제행사		주제 심포지엄 II		중소병의원 발전 위원회 심포지엄	14:00-15:00
15:00-16:00									15:00-16:00
16:00-17:00			포스터 전시			슬기로운임상병리 퀴즈쇼	보건복지부 필수교육 (아동인권과 학대예방, 아동학대)		16:00-17:00
17:00-18:00	폐회식 (1층 전시장)								17:00-18:00

☞ 본 프로그램은 학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한진단검사정보관리협회 세션을 수강하면, 품질인증 및 수탁기관인증을 위한 외부교육 실적 1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의무화' 추진에 있어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은 적정한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기유



국민주권 시대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 인력에 대한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종류별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화하는 의료현장에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직종 중에서 임상병리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 중심 의료는 이렇게 다양한 직종들이 팀 기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이 없어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 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의료기관 내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이를 정원 규정으로 현실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이슈들

2025년 노인인구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노인 연령층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유병률 확대와 그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단순한 장수를 넘어 양질의 삶,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기대 수명에 미치지 못하여 질병 또는 장애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으로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현재 보건의료 인력이 의료 수요에 적정한가에 대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성과 숙련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짧지 않은 시간과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사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공간이 아니다. 의료는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의료정책은 철저하게 의사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의정사태를 야기한 의대 정원 확대에서도 과학적 근거는 무시하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강행한 의대 정원 확대는 실제로 환자 곁을 지키며 의료를

지탱해 온 수많은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이제는 의사 인력 확대 논의를 넘어, 다양한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할 때라고 본다. 이를 통해 보건 인력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건강 중심의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은 무엇인가?

적정이란 사전적 정의는 알맞고 올바른 정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의학적 적정성과 사회적 적정성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적정성은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인력 기준이 산출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인력의 적정성 평가 기준으로는 양적 공급, 질적 수준, 분포, 효율성, 적합성, 수요와 공급 추계, 환자 중심성 기반 다학제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의료 인력의 개발 과정은 보건의료 체계와 교육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체계의 경우, 보건의료 인력 연수·보수교육 관리 등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면허·자격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면허 및 자격 신고를 위해 연수·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 20%가량 이수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보건의료 인력 정책 자료에서 보면 보건의료 인력 전반의 현황을 진단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며, 수행된 보건의료 인력 실태 연구는 각기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검토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인력 전반 및 직종별로 지적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현황과 실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 시급성이 큰 문제를 도출하며,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는 면허 및 자격 제도로 업무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도 의료법 안에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므로 임상병리사 등과 같은 보건의료 인력들은 적정한 인력 기준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현행 의료법 36조 정원 규정에 '다른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②항 "의료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의료기사는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간호사는 종합병원에서는 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는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으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상병리사는 환자 수와 업무량을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 이러한 보건의료 인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보건의료 요구(demand)나 필요(need)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및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상병리사 인력에 대한 적정 기준은 진단검사 분야의 의사 인력과 의료기사의 결합 비율, 허가 병상, 상대가치점수, 검사 건수를 고려하여 임상병리사 적정 인력 기준이 책정되어야 한다. 적정 의료 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울산의 주요 관광 명소

대한민국 인증 친환경 생태 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강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인공물을 최소화한 친환경 생태공원이다. 중구와 남구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총면적 835,452㎡의 하천부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생태, 대나무, 계절, 수생, 참여, 무궁화 총 6개의 공간이 있다. 특히, 이곳의 십리대숲은 바람에 부딪히는 대나무의 맑은 소리와 한적하고 아름다운 길로 유명하다. 주위에 태화루, 십리대밭교, 동굴피아, 전망대, 철새 홍보관 있다. 여름에는 백로, 겨울에는 떼까마귀 등 각종 철새들이 대량 서식하는 탐조여행지다.



상생의 증표 울산대공원

울산대공원은 364만 ㎡(110만 평)로 뉴욕의 센트럴파크(약 340만 ㎡)보다 넓다. 각종 테마정원, 생태여행관, 피크닉장 등 친환경 생태시설 위주로 조성돼 있으며, 장미축제를 비롯해 매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공원은 SK가 1,0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후 지역사회에 기부한 곳으로 상생협력의 대표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울러 대공원 내 동물원은 앵무새와 미어캣, 사막여우, 코아티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이다.

동아시아 해양어로문화의 생생한 증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태화강 상류의 지류 하천인 반구천(대곡천)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암각화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총 11개의 바위 면에 고래와 거북,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 그림과 도구, 인물 등 총 3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 그림은 선사인들의 해양어로문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옛마을 그대로 살린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장생포 고래잡이 어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고래광장, 장생포 옛마을, 선사시대 고래마당, 고래조각 정원, 수생 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반구대 암각화와 고래잡이 벽화 등 선사시대 고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야외 학습 공간도 있다.

까만 몽돌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주전몽돌해변

동해안을 따라 1.5km 해안에 동글동글한 까만 몽돌이 해안에 길게 늘어선 절경을 이룬다. 해변에는 수많은 기암괴석이 수백만 년의 시간을 달려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꽃으로 피어난 강동몽돌해변

정자항의 고운 모래사장과 주먹만 한 몽돌이 공존하는 곳이다. 이 곳의 북쪽 끝에는 '꽃바위'라 불리는 주상절리 '화암(花岩)'이 피어있다. 동해안 주상절리 중 용암 주상절리로는 가장 오래된 곳이다.



바람과 파도가 빛은 절경 대왕암공원

신라 문무대왕비의 전설을 간직한 이곳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 고고한 등대와 푸른 동해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출렁다리, 사시사철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볼거리다.

가장 먼저 빛이 드는 곳 간절곶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실제 우편물이 배달되는 5m 높이의 소망우체통과 아름다운 등대 16경에 선정된 간절곶 등대, 세계 최대 크기의 로봇 정크아트를 둘러볼 수 있다.





제509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7월 10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 50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7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부장 26명 중 17명, 총원 45명 중 34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시도회·분과학회·산하단체장 워크숍 개최 안내, 2025년 제510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2027년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선정 관련,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관련 시도회·분과학회·산하단체 숙박 신청 안내, 제16기 임상병리사 시험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제1차 조직위원회 개최 안내, 대한임상병리사협회&YBM연수원 상호협력 위한 파트너십 제휴 진행, 사무국 직원 관련 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6년 제64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제주대회 1차 홍보지원금 지급, 회의 식비 초과 내역 보고 ▲학술부 제6차 학술부 회의, 연자공개모집(국제, 미래융합심포지엄) 진행 보고의 건, 생리기능검사 핸즈온 심포지엄 기획안, 국제학생포럼 진행 보고의 건, 2025년도 편집위원회 워크숍 실시의 건, 2025년도 제2회 대한임상검사과학회 논문경진대회, 2025년도 대한임상검사과학회 IMPACT SEMINAR,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제57-2호(2025년도 6월호) 논문교정심사비 보고, KJCLS 국제 편집위원회 추천 및 모집의 건 ▲교육부 2025년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워크숍, 제3차 임상병리학과 학제일원화 TF 회의, 제3차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 회의, 온라인 보수교육 촬영 및 업로

드 보고의 건, 임상병리학과 학제일원화 TF 위원 변경의 건 ▲국제부 AAMLS 관련 일본 단기트레이닝 참가 공고 모집의 건, AAMLS 웹사이트 각 회원국 소식지 건, IFBLS Scientific Network of Experts 2025 관련 지원자 모집 공고 알림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6월호 발행의 건, 서울 및 수도권 광역전철 영상광고 대금 지급의 건, 전국 임상병리(학)과 학생 이벤트 경품 지급의 건, SNS 홍보의 건, 보도자료 및 축사 작성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보고의 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의 건, 협회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건, 6월 엠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2025 메타버스 엑스포 참가 보고의 건, KMI 한국의학연구소 업무협약의 건 ▲법제부 2025년 제2차 법제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대외협력부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2025년 전시부스 위치추첨식 및 후원협력사 간담회 개최 예정 ▲중소병의원부 2025년 16개 시도회 대표위원 상반기 워크숍 진행의 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관리 방안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 진행의 건, 공익신고위원회 6차 회의 진행의 건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제6차 보험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업무협약 체결의 건이 진행됐다. 안건은 통과됐고 기타 토의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라이브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의 건을 진행한 후 제509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이광우 협회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에 정책 제안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주최한 박찬대 후보 직능단체대표단 간담회에 참가해 협회 정책 현안을 소개하고 심의를 촉구했다. 7월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박찬대 후보를 비롯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안태준 국토교통위원이 참석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직능단체대표단 중 첫 번째로 발언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협회

중점 현안인 4년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찬대 후보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에게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 소속 협회장들 역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제외 요청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에 의료기사가 등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추가를 촉구했다.



중앙회 동정

- 07월 01일 KMI한국의학연구소 업무협약식
- 07월 02일 전산업체 회의
- 07월 03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제2차 회관운영위원회 회의
- 07월 05일 경기도 중소병의원 간담회
- 07월 07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정기이사회
- 07월 09일 제7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단체장 회의
- 07월 10일 제509차 상임이사회
회계프로그램 업체 회의

- 07월 12일 시도회, 분과학회, 산하단체장 워크숍
-13일
- 07월 18일 제63회 종합학술대회 PCO 업체 미팅
- 07월 22일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 회의
- 07월 23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업무협약식
- 07월 24일 평생교육원 운영회의
- 07월 26일 시도분과, 산하단체 실무자 교육
- 07월 28일 국제부 회의
- 07월 30일 전산업체 회의
- 07월 31일 중소병의원부 회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이 7월 10일(목)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고령화 등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광우 협회장은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임상병리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검사 전문가로서,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노인 의료 대응 체계 구축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및 정밀검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각종 산전 검사도 보편화돼 임상병리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건강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광우 협회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HR인사노무닷컴 신동환 대표를 지목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KMI한국의학연구소와 MOU 체결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7월 1일(화) 오후 3시,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광배, 이하 KM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KMI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측은 앞으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우 협회장은 협약식을 마친 후, “이번 KMI와의 업무협약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혜택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진행되었다”며 “이번 협약이 양 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광배 KMI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KMI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평생 건강관리 파트너’이자 ‘K-건강검진’을 선도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협회장, 최병호 사업부 회장, 박희열 기획정책이사, 고인철 정무이사, 이민우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KMI 이광배 이사장, 김대진 사업전략실장, 조찬우 광화문센터장 ▲KMI 중앙분석센터 이유경 본부장, 박연숙 본부장, 조수연 진료부장, 김소영 진료부장이 참석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와 MOU 체결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정회원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제주 할인가에 객실을 제공할 예정이다.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는 제주공항에서 남서쪽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독채형 리조트로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이광우 협회장은 “제주의 자연이 깃든 최고의 시설인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협회 회원들이 힐링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설희 제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대표는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협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 소통광장 - 정회원 복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KAMT 울산 Plenary Lecture 연자 차경호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명예회장을 만나다

이번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는 'Plenary Lecture(전체 강연)'가 예정돼 있다. 'Plenary Lecture'란 각 연구분야의 대가들을 초청하여 최신 동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강의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번 'Plenary Lecture' 연자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팀장이자 제14대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회장인 차경호 명예회장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5대 상급종합병원으로 불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장시간 근무해 온 차경호 명예회장을 만나 그의 삶의 여정과 임상병리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경호라고 합니다. 1987년도에 임상병리학과에 입문을 해서 1990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전신인 강남성모병원에 입사 후 현재 35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업무 실무를 20여 년간 했고 생화학 UM(Unit Manager)를 5년, 팀장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협회 활동은 34살부터 한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무렵인 2001년에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활동을 시작해 13년 정도 했고 2008년 무렵부터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활동을 해서 2024년 2월 까지 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Q.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랜 기간 CMC(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와 그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CMC와 임상병리사, 어떠한 역사의 의미를 가질까요?

협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의 굴곡점마다 CMC에서 봉직하셨던 김약수 선생님, 김남호 선생님 등 여러 선배님들의 활약을 잘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장으로 있을 때 학회 35년사를 임기 내에 출간했습니다.

선배님 중 김약수 선생님은 1989년도 초대 국시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김남호 선생님은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팀에 근무하셨던 김남호 선생님의 자제분께 말씀드려서 친필 서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학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통찰력을 이어받고 그런 것들을 승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35년간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시면서 어떠한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을까요?

저는 특출나게 뛰어나지를 못했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마트'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하지만 저는 목표를 세우면 차근차근하는 스타일입니다.

젊은 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젊은 날부터 퇴근 시간 딱 되면 집에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한두 시간 정도는 병원에 남아서 뒷정리를 하거나 미진했던 것들을 리뷰하고 이렇게 젊은 날 쪽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날 그 일과 중에는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리뷰를 하다 보면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쪽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 넘게 이렇게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통 집에 가는 게 보통 8시쯤 돼요. 5시 퇴근이 거든요. 근데 이제 뒷정리 좀 하고 가고 머리 식히고 '내일 뭐 할까?' 이런 생각들 하고 또 '우리 후학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분들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해보면 젊었을 때 박정준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미생물 분야에 지금 퇴직하신 우리 선배님인데 그분이 제가 입사를 해서 신규 직원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 금방 갑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한 게 그날 그 시절의 그 표정 그리고 그 진심을 바로 느끼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결심을 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선배님이 3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분도 매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늦게 같이 공부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선배님이 저한테 준 교훈이었어요.

30대 때는 모시고 있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 업무를 하는데 이제 '그 일만 할 줄만 알아'의 단계에서 좀 벗어나 질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검사의 맥락이 어떻고, 이걸 임상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이런 연계성들을 가지고 이 검사의 전반을 이해해야 되는데 검사 업무를 할 줄만 알고 잘 하려고 그거만 한계를 줘서 자꾸만 하니까 이제 답답하셨는지 그런 걸 이제 좀 폭넓게 보도록 이렇게 지도해주셨어요.

40대 접어들면서는 이제 논문을 써보라고 교수님이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저널에도 논문을 낸 적이 있죠. 논문을 써보니까 또 느끼는 무언가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그 생각을 텍스트로 만들고 정해져 있는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틀을 갖춘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

Q. 오랫동안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으로 근무해오시면서 많은 후배 임상병리사들을 선발하셨을텐데 임상병리사의 직업관과 필요한 자질, 요구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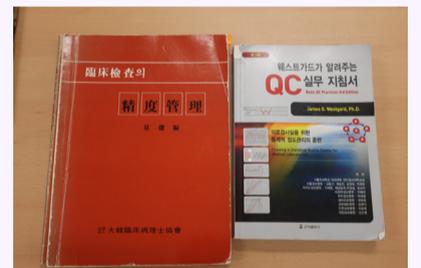
저는 새로운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입사를 하면 한 보름 정도 이내에 부서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의 업무와 마음 자세, 병원의 폭넓은 지휘 체계에 대해 설명하며 검사실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알고 일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검체 검사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돼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도움이 되려면 임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의 요구사항으로 처방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가서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해야 하고요. 또, 검사 결과에 대한 영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폭 넓게 임상이가 바라볼 때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지 임상이고 단절하고 우리 검사실에 온 검체만 가지고 아웅다웅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검체만 만지작거리는 게 아닌 임상의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거죠.

Q. 이번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Plenary Lecture 의 연자로 나서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준비 중에 계실까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주위를 쪽 둘러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선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도서가 '웨스트가드가 알려주는 QC 실무 지침서 제3판'이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번역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서덕규, 김약수 선생님이 집필하신 '임상검사의 정도관리'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래서 초판 200부를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에도 매우 좋은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머리말도 매우 훌륭하고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QC 실무 지침서에는 통계적인 내용도 있지만 내용에서 보면은 검체 검사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본인의 부모님 피를 검사하는 것처럼 검사해라'라고 돼 있고 '업무적인 지식이 그 사람의 지위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아는 것은 힘이다' 이런 내용들이 쪽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젊은 날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선배님들은 어떤 말들을 하셨는지, 질 관리의 요체, 후학들이 신경 썼으면 하는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과 미션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회에서 하고 있는 학제단일화,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등 중요한 정책들은 다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인터뷰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님들의 온전한 그 바람들, 이력들이 밑에 젊은 분들한테 뿌리내리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역사 보존을 해야 합니다. 협회에 한쪽에는 병리협회가 초판부터 정리돼 있어야 하고 이러한 역사의 자료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료실을 마련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옛 선배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았는지 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게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r.seegenemedical.com/>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귀 병원의 진료가 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으로 진출합니다!”

해외의료 국제협진과 PPCC (Pre Post Care Center)

(재)씨젠의료재단과 오픈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해외 메디컬 센터를 기반으로, 한국 의료기관과 현지 의료진이 협력하여 해외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자흐스탄 의료 국제협진 특징점

- 01 코리안 메디칼 센터 알마티 운영
- 02 최첨단 의료장비 완비 (MRI, CT, 내시경, 진단검사의학·분자진단·병리 검사 등)
 -  MRI 3.0T (중앙아시아 최초 도입)
 -  CT 256 슬라이스 (카자흐스탄 최초 도입)
 -  내시경 검사
- 03 안정적인 해외 환자의 진료와 원활한 해외 진출 지원

PPCC (Pre Post Care Center, 사전·사후관리센터)

- 해외 환자 진료 및 관리 프로그램 -

사전 관리 Pre Care

-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기초 검사 및 진단 실시
 - 통역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한국 진료 및 치료 위한 준비 지원

국제협진

-  진료 장소
 <한국> 협력 의료기관
- 공동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시설 및 인력·장비 공유

사후 관리 Post Care

-  진료 장소
 <카자흐스탄>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 치료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원격 진료를 통한 환자 상태 공유
 - 필요 약물 및 재활 치료 현지 제공

• 해외의료 국제협진 협력 : 오픈헬스케어(주) ☎ 02-2114-8011 🌐 <https://www.ohc.global> ✉ ohc@ohc.global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2023년 7월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오픈헬스케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미국·베트남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의료 해외진출·해외환자의 국내유치**에 힘쓰고 있고, **한국의료기관과 해외환자의 진료를 위해 오픈헬스케어와 협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SMF Central Laboratory
 (2025. 8월 준공 예정)



부산경남검사센터
 Busan Laboratory Center



대구경북검사센터
 Daegu Laboratory Center



광주호남검사센터
 Gwangju Laboratory Center



대전충청검사센터
 Daejeon Laboratory Center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알마티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Almaty
 (Kazakhstan, Almaty)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LA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LA
 (USA, Los Angeles)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 센터 하노이
 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Hanoi
 (Vietnam, Hanoi)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가 6월 21일 대구 엑스코(EXCO) 서관 3층에서 '2030 임상병리사 분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주제로 2025년도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3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보수교육은 1, 2교시에 공통 교육으로 △상대기 치점수의 이해(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인욱) △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 통합관리(서울대학교병원 여영기)가 진행됐다.

이어진 3, 4교시에는 분야별 전문교육이 제공됐다.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는 △현장검사의 현황 및 적용(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태중) △감염질환의 신속면역검사(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한은희). 조직병리 분야에서는 △엑세스를 활용한 정도관리 및 검체확인(칠곡경북대학교병원 조희택) △유방병리의 이해(영남대학교병원 김민중). 생리검사 분야에서는 △신경전도검사법 이론 및 실습(전 서울삼성병원 한형태)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 밖에도 필수교육 영상 시청, 경품 추첨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성식 회장은 “이번 교육은 대구 지역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구시회뿐만 아니라 전국 임상병리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중소병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가 6월 21일(토) 오후 3시, 포항여성병원 대강당에서 중소병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역 내 임상병리사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임상병리사회 협회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회를 순회하며 진행되는 소통 행사로, 경북 지역은 열 번째 순서로 개최됐다.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도회 집행부와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광우 협회장이 ‘임상병리사의 미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최병호 협회 사업부회장은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병의원’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정책을 비롯한 협회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의 후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불법의료행위 신고 활성화 및 기대효과 논의 △간호법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기타 의견 등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도회 집행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현실적인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의미 있는 공감의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경북도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회원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회장 정무상)가 7월 5일(토) 제주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제주도회 120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교육은 ▲말초혈액에서의 비정상 백혈구(시스맥스 김시영) ▲임상병리사가 알아야 할 기본 법규와 규정(제주대학교병원 김봉찬) ▲소변검사의 목적과 해석(제주대학교병원 최영임) ▲뇌혈관질환과 초음파검사(제주대학교병원 이대선)과 필수교육(아동학대)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중앙회 이도왕 공부부회장이 참석해 대한임상병리사회가 나아갈 정책 소개와 함께 울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홍보하며 많은 참석을 부탁했다.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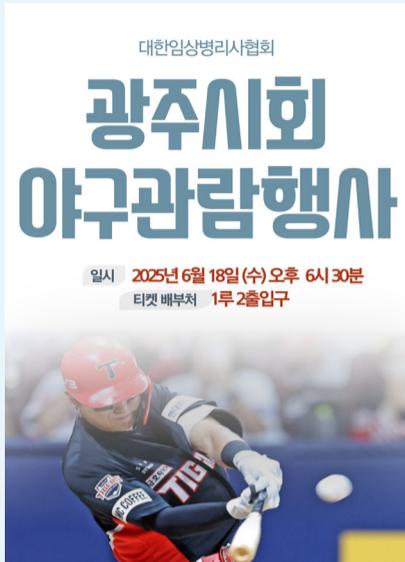
회원과 함께 야구 관람 행사 실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서정훈)가 6월 18일(수)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광주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야구 관람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시회 회원이라면 동반 1인을 조건으로 총 150명을 신청받았으며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물과 김밥 등을 제공했다.

이날 경기는 5대 3으로 기아가 역전승을 해 회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하며 경기를 즐겼다.

서정훈 회장은 “더운 날씨에 광주시회가 준비한 야구 경기 행사에 많은 관심 주시고 참석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광주시회는 회원들이 원하는 양질의 문화관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병원 수박배송 이벤트 실시

광주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6월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광주 소재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수박 배송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더운 날씨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원한 수박을 각 중소병원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기획됐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서정훈 회장은 “일찍 와버린 여름에 스트레스 해소가 되시길 기원하는 바람에 준비한 수박배송 이벤트가 모든 중소병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광주시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양질의 검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중소병원 모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2차 보수교육 실시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가 6월 28일(토) 오후 2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대강당에서 2025년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제2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22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보수교육에는 동남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봉사동아리 동남다빈의 안내 봉사활동을 진행해 회원들의 원활한 보수교육 참여를 유도했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에는 김성민 정보통신이사가 주도적으로 협력사를 설득해 최신 검사장비정보 및 이벤트 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사 부스가 설치됐다.



중소병의원 소통 및 정책간담회 실시

경기도임상병리사회가 7월 5일(토) 오후 3시 공간더하기 강남역점에서 중앙회 주관 중소병의원 소통 및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 위치는 서울을 품고 있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여러 곳에 분포하는 중소병의원 회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강남역으로 결정됐다.

유광철 회장의 ‘협회는 회원들의 것’이라는 인사말로 간담회가 시작됐으며 중앙회 이광우 협회장과 최병호 사업부회장이 그간 협회 사업 활동 보고 및 미래 전략을 통한 임상병리사의 위상 강화를 중점적으로 강연을 실시했다. 특히 작년부터 경기도회가 주도했던 사업 중 포천시, 화성시, 수원시에서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 및 봉사활동 등이 중앙회에서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의료돌봄 사업에 임상병리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어 그 가능성을 더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Microtome blades



홈페이지
www.
hyunil-lab.com



쇼핑몰
www.
lab-mate.com

원하시는 제품의 Sample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BEST ○ = GOOD	Soft tissue	Hard tissue	Cryostat	Thin sectioning Ribbon sectioning
HFE-S35	■	◎		○	○
HFE-A35	■	○	◎	○	○
HFE-S22	■	◎		◎	
HFE-A22	■	◎		◎	○
HFE-C35	L			◎	
HFE-FHP-01	■	◎	○		◎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2025년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 개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이현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선경)가 6월 14일(토)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2025년 혈액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현아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계의 판도가 AI를 기반으로 ChatGPT의 역할에 매우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AI와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해 언어 모델을 제대로 요구하려면 혈액검사학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AI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전문임상병리사 워크숍을 통해 학술적으로 좋은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81명의 혈액전문임상병리사가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체액검사의 세포수 산정과 형태학적 감별(서울아산병원 최미옥) ▲RDW, PDW, MPV에 대한 이해와 적용(삼성서울병원 김수빈) ▲유세포의 기초와 활용(삼성서울병원 박수배) ▲혈우병A 치료제 에미시주맙(세브란스병원 김선경)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2025년도 정년퇴임자 환담회 실시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가 13대 학회장이었던 최미옥 전 학회장의 정년퇴임을 맞이해 그동안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미옥 학회장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를 이끌었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2025년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6월 보수교육 실시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학회장 소선기)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위원장 신민식)는 6월 21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지하 2층 대강당에서 6월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위원회 회원 36명이 참석했고, Session 1에서 3월 개최한 ‘한국·일본·대만 3개국 조인트 미팅’에서 발표된 △Major Point of HSIL Misinterpretation of Menopause Over 55 ages(한국원자력의학원 신명순) △Correlation Between

Cytological HSIL and Histopathological Squamous cell carcinoma: Analysis of Discrepant Cases and Diagnostic Challenges(에보스의원 이지현) △Reducing diagnostic discrepancy in mesothelioma through slide review(경상국립대학교병원 노진경) 등 연제가 발표되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Session 2에서는 △Understanding ‘Negative’ in TPS 2nd Edition(경희의료원 이주영) △Challenges in Diagnosing Atypical Urothelial Cells and High-Grade Urothelial Carcinoma in Urine Cytology(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최병일), △Molecular Pathways of Neoplastic Transformation of Urothelium(강릉아산병원 강주원)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후 보수교육은 종료됐다.

위원회는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당일 오전에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인과 세포학 관련 내용을 학술 세션으로 준비하고 11월 이후 심화 과정으로 ASCPi cytology 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니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회원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육안병리검사 실무표준 제2권 출판 임박

여성생식기계 및 비뇨기계 · 남성생식기계 중심으로

임상병리사의 전문영역이 더욱 깊어지고 업무 현장에서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최근, 병리와 내 육안표본검사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병리 전공의 수의 감소와 수술 검체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육안검사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육안검사 분야의 표준화된 지침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간된 ‘육안병리검사 실무표준’ 제1권은 소화기계 및 호흡기계를 중심으로 한 실무 중심의 지침서로 현장 실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서적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에게 정확도 높은 육안검사 수행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 목적의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곧이어 그 흐름을 잇는 제2권이 곧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될 신간은 여성생식기계(Uterus, Ovary) 및 비뇨·남성생식기계(Kidney, Urinary bladder, Prostate, Testis, Penis) 등 다양한 계통의 육안병리검사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와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속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병리표준화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집필진을 구성하여 발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지우현 위원장은 “여성생식기 및 비뇨기계의 병리 검체는 해부학적 구조의 복잡성과 병리학적 다양성으로 인해 육안검사의 숙련도가 더욱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해당 서적의 출판 의도와 그 필요성을 명확히 되짚었다. 이어서 경기도임상병리사회 김기성 법제이사는 “이번 제2권은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권은 2025년 하반기에 모든 집필의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전공자와 실무자가 함께 참고하여 실무에 대한 보조뿐 아니라 학습,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육안병리검사의 표준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기대된다.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대한임상수혈·혈액검사학회,
한국임상병리학과 혈액학·수혈학 전공교수회
공동워크숍 개최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김은영)와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한국임상병리학과 혈액학·수혈학 전공교수회가 7월 19일(토) 대한임상병리학회 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워크숍 행사는 혈액학·수혈학 전공 교수들과 혈액·수혈검사학회와의 학술 교류와 교육 방향 설정 그리고 각 단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각 단체의 임원 소개를 시작으로 총 4개의 강의를 진행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형석 교수는 ‘ABO 부적합이식에서의 수혈’을 주제로 임상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사례와 수혈 전략을 공유했다.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강지상 부회장은 ‘혈액은행 정도관리와 수혈관리실’이라는 주제로 병원 현장에서의 정도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문세훈 부회장은 ‘혈액학 정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검사실 내 관리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 이현아 학회장은 ‘SI와 의료기기’에 대한 강의를 통해 최신 기술이 검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행사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혈액·수혈 국가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 방향 토의’를 통해 교육과 평가 기준의 질적 향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혈액학 및 수혈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검사학 분야의 표준화 및 실무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공 교수들 및 학회 임원들과 활발한 논의와 교류를 통해 향후 발전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



제10회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 및 핵의학분야 ISO15189
심포지엄 개최



대한임상핵의학검사학회(학회장 박준모)가 7월 5일(토) 대한임상병리학회 회의실에서 제10회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 및 핵의학분야 ISO15189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준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핵의학전문임상병리사와 ISO15189 인증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교육은 셀비온 김권 대표의 ‘방사성의약품 개발현황’을 시작으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박정미 교수의 ‘ISO15189 교육(영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차연호 회원의 ‘불확도요인을 통한 측정불확도 추정’, 신한대학교 표상신 교수의 ‘유효숫자: 임상검사 정도관리 시작점’이 실시됐고 마지막으로 박준모 학회장의 진행 아래 ‘검체검사 인증 관련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가지며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박준모 학회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학업 분위기 속 진행된 이번 교육은 회원들 간의 업무지식 공유와 더불어 인적 교류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내년에도 더욱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혜전대 이동섭 교수,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회장 취임

6월 20일(금) 개최된 2025년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혜전대학교 이동섭 교수가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동섭 회장과 더불어 부회장에는 이기종(연세대학교), 박창은(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주요 추진 과제로 ▲고등교육법 개정 통한 4년제 학제 일원화 ▲현장실습 제도적 정비 및 실습서 표준화 ▲교육 평가인증제 고도화 참여 ▲보건복지부·교육부와의 협의 통한 학과 정원 조정 등을 제시한 이동섭 회장은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임상병리학의 전문성과 교육 과정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임상검사과학회



2025 제2회 논문경진대회 및 KSCLS IMPACT Seminar 개최

대한임상검사과학회(학회장 성현호)는 임상병리학 분야의 학술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 제2회 대한임상검사과학회 KSCLS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임상병리 업무와 관련된 학술·정책·교육 등 주제로 한 논문을 6월 2일(월)부터 8월 3일(일)까지 접수했으며 8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닷새 동안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8월 23일(토) 개최되는 2025 KSCLS IMPACT Seminar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KSCLS IMPACT Seminar는 대한임상검사과학회가 임상병리사의 학술 역량 강화 및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25 KSCLS IMPACT Seminar
- 일 시 : 2025년 8월 23일(토) 13:00 ~ 16:30
- 장 소 : 동남보건대학교 혜정관 1층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 참석 대상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원 및 산하기관 실무자
- 전국 시도회, 분과학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재)씨젠의료재단, 「SeeLIS 구축 종료 보고 및 오픈식」 개최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은 지난 6월 25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3년여 간 추진해 온 차세대 검사정보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이하 LIS)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와 '씨엘아이에스(SeeLIS)'의 공식 오픈을 기념하는 「SeeLIS 구축 종료 보고 및 오픈식」 을 개최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씨젠의료재단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역 검사센터가 실시간 온라인 연결을 통해 함께 참여하였고, ▲차세대 LIS 구축 경과 및 성과보고 ▲공로자 포상 ▲내빈 축사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행사에는 천종기 이사장을 비롯해 한규섭 대표의료원장·강신광 대표병원장 등 경영진과 행정·검사·사업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SeeLIS 개발을 담당한 주사업자 (주)두산DDI와 협력사 (주)RNB·(주)IDR·(주)화산시스템·Cat Soft(주) 등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품질 향상·업무 표준화·글로벌화 기반 마련

이번에 오픈한 SeeLIS는 씨젠의료재단의 검사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일선 병·의원에 최적화된 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준정보(Master Data) 체계 정비 ▲영업관리 체계 개선 ▲화면 표준화 및 기능 통합 등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약 4,500종에 달하는 진단검사 항목을 검사 방법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검사 단계별 오류 및 불량 사례를 실시간으로 파악·추적할 수 있는 불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사 품질 관리 수준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국내 다수 검체검사 수탁기관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서 한 단계 나아가 웹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icro Service Architecture, MSA)를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통합의 신뢰성 ▲업무 편의성 ▲해외 현지화 적용 용이성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씨젠의료재단은 글로벌 진단시장 진출 시 현지 상황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글로벌 진단시장 경쟁력 강화에 디딤돌

씨젠의료재단 천종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차세대 LIS 구축은 우리 재단의 숙원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오늘의 SeeLIS 오픈은 임직원 모두의 헌신과 협력 사들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분석 기능과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진단의 정확성,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 이사장은 “SeeLIS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단시장에서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의 3대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해외 진단검사 네트워크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비전도 강조했다.

해외 진출 발판으로 지속 성장 예정

씨젠의료재단은 2023년 7월 해외 의료진출 전담 법인인 오픈헬스케어(주)(Open Healthcare, Inc.)를 설립하고 카자흐스탄·미국·베트남 등 글로벌 거점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SeeLIS는 이러한 해외 진출의 핵심 인프라로서, 글로벌 표준화와 지역별 현지화 전략을 뒷받침하며 선도적인 진단검사정보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씨젠의료재단은 앞으로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검사 품질 혁신을 멈추지 않고, 글로벌 진단시장으로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질병검사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방침이다.



**KJCLS 6월호(Volume 57, Number 2) 발행**

논문 제목 클릭 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view Article**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Patient-based Real-time Quality Control Using Moving Average Method**

Seung Mo LEE, Kyung-A SHIN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131-141

Original Articles**In Vitro Evaluation of Propolis Effects on Bacteroides fragilis Toxin-mediated Inflammatory Pathways**

Soonjae HWANG, Yeram LEE, Ki-Jong RHEE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142-151

Synergistic Effect of Angelica gigas and Saccharin on Antiproliferative Activity in Ovc3 Cells

Sang Yong PARK, Yu Jin PARK, Min-Woo LEE, Ji Hye HEO, Dong-Gil KIM, Suhng Wook KIM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152-162

Clarithromycin Resistance Rates of Helicobacter pylori Infected Gastric Biopsies in Korea

Moo-Sang CHONG, Kyutaeg LEE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163-171

Comparison of Indoor and Outdoor Total Airborne Bacteria and PM10 Concentrations Based on Occupants in Schools

Harim AN, Hyekyung SEO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172-180

Common Metabolomic Changes in Various Drug Treatments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Are Related to Purine Metabolism

Seungyeon LEE, Jiyeong LEE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181-188

Impact of Medical Technologist's Working Environment on Health Problems: Using Data from the 6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aewon JUNG, Miran LEE, Sang-ha KIM, Sunghyun KIM, Young-Kwon KIM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189-196

Relationship between Hyperuricemia and Handgrip Strength according to Gender and Menopausal Status in Korean Adults: Analysis of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6~2019

Inyoung KANG, Jaewang LEE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197-208

Case Report**Case of Presumed Diagnosis of Rat Mite Dermatitis**

Haeyong JUNG, Hae In BANG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209-214

Technical Notes**Guidelines for Holter and Wearable Electrocardiogram Monitoring in Arrhythmia Diagnosis and the Role of Medical Technologists**

Do-Hee KIM, Ji-Yeon CHANG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215-227

A Study on the Workload of Cytotechnologists: Focus on Commercial Laboratories

Eun-Suk PARK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228-234

Policy**Improving Regional Allocation in the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Exam in South Korea**

Dae Woong KIM, Je Keun JEON

Korean J Clin Lab Sci 2025; 57(2): 235-246

특별기고 : 생리학검사의 미래를 생각하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
위원장 박 상 구

지난 7월호에 소개한 노태호바로내과 부정맥센터 김여진, 나선옥 회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 생리학검사 영역에서 현재는 직접 심전도검사를 하지 않고 의뢰된 심전도 파형만을 분석하는 등 새로운 임상병리사의 업무 분야가 발생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 박상구 위원장은 병리협보 7월호를 읽은 후 생리학검사의 미래에 대해 제언하기 위해 글을 기고했다.

우리는 AI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 주변에 AI 관련 어플은 25,0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생리학검사 영역에도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뇌파검사는 환자의 뇌 상태를 반영하는 검사로 검사 시간에 비례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검사로 최소 30분에서 최대 24시간 이상 검사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뇌파 판독자인 신경과 의사는 수작업으로 몇 시간 동안 뇌파를 육안 판독해야 하는 불편함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4시간 동안 검사한 뇌파검사를 단 2분 만에 정확도 97%로 AI가 판독하는 시대이다. (Catarina da Silva Lourenco, Marleen C. Tjepkema-Cloostermans, Michel J.A.M. van Putten. Ultrafast review of ambulatory EEGs with deep learning. Clinical Neurophysiology. Volume 154, October 2023, Pages 43-48)

뇌파검사는 판독뿐만 아니라 검사방식도 단순화되어 뇌파모자(EEG Cap)를 환자의 머리에 씌우면 전극 부착이 끝난 것이고, 뇌파검사도 무선 모바일시스템으로 기록이 되어 환자는 집에서도 뇌파검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Andrea Biondi, Viviana Santoro, Pedro F Viana, Petroula Laiou, Deb K Pal, Elisa Bruno, Mark P Richardson. Noninvasive mobile EEG as a tool for seizure monitoring and management: A systematic review. Epilepsia. 2022 Mar 27;63(5):1041-1063)

심전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를 붙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한 자가 하면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로 부정맥 진단과 심전도 분석 리포트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판독을 하는 심전도 자동화 분석 솔루션 검사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임상병리사가 심전도검사를 하는 행위자체가 매우 단순화되어 검사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AI 기술의 발전을 볼 때 앞으로 이러한 심전도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추세이다.

순환기내과 진료에서 환자가 착용하고 있던 갤럭시워치에서 심전도 정도를 추가로 얻는 경우가 종종 있고, 호흡기내과에서는 폐기능검사 결과 판독을 AI 자동 판독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Paresh C Giri, Anand M Chowdhury, Armando Bedoya, Hengji Chen, Hyun Suk Lee, Patty Lee, Craig Henriquez, Neil R MacIntyre, Yuh-Chin T Huang.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in Pulmonary Function Assessment Where Are We Now and Where Are We Going?. Front Physiol. 2021 Jun 24;12:678540)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의료-돌봄 통합지원법을 2026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르신이 종종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를 미리미리 진단하여 만성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에는 3차 의료기관보다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1,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임상병리사의 현장진단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장진단검사서 임상병리사는 장비의 선택, 교육, 표준운영절차, 정도관리,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등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웃 국가인 대만, 중국, 일본에서는 의료 사물인터넷(Internet of Medical

Things, IoMT)을 적극 활용하여 원격 진료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환자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환자 중심의 삶에 의료인이 참여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즉, 질병, 질환 중심으로 환자가 되어야 병원과 연계되는 문화였다. 이제는 국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고령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국민 삶의 질에 국가가 관여하여 관리하는 문화로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는 스마트병원 시스템 속에서 더욱 현실화될 수 있다. 스마트병원이란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정밀의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가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으로 연동되는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임상병리사의 현장진단검사 방향도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맞추기에는 아직 조율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스마트병원 구축을 하고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기 위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법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생리학검사 분야에서 몇 가지 부조화 현상이 존재한다.

첫 번째, 검사 행위 자체는 간단해졌지만(웨어러블 장치 부착 후 간단한 설명) 기록된 데이터가 수백 건, 수백 시간에 달해 분석 및 판독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두 번째, 정보보안 및 데이터 전송 관련 업무의 증가로 환자 개인정보 보호, 저장 및 암호화, 접속 권한 관리 등 새로운 보안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 의료기관 내부 네트워크 정책, 보안 솔루션 등의 제약으로 임상병리사가 IT, 보안적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네 번째, 웨어러블 장치의 장착 후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검사시간 중심에서 상담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환자가 검사장치 착용 후 집으로 가 있는 동안(24시간~ 10일 이상)에도 장치의 기록 관리 및 환자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존에 임상병리사가 검사 위주의 행위에서 데이터 관리와 환자 상담, 보안 대응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직무'로 전환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인다.

문제는 하이브리드 직무에 적합한 임상병리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틈새를 임시적으로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의 생리학검사 분야는 '전통적 검사기술자'에서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관리자'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공식적인 교육, 지원,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전담임상병리사(Physician Assistant, PA)라는 진료 및 진단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의 적극 양성해야 할 것이고, 특히 생리학검사 분야에서는 코디네이터 임상병리사 또는 헬스케어 임상병리사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임상병리사 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회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8월 22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양식 ●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면허번호, 배송 주소

♥ 제510호 당첨자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디지털 헬스케어 새로운 지평을 열다-홀터를 넘어 웨어러블 심전도의 혁신

■ 권선자 회원 / 면허번호 : 22330

작년 6월, 가족의 심장 이상으로 119도 타보고 중소병원에서 홀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꼭 마이마이처럼 생긴 카세트에 흉부에 2개 옆구리 쪽에 1개의 lead를 24시간 부착 후에 그 리듬을 병리사인 제가 보고 담당과장님이 판독하셨는데 이번엔 정말 아주 간단히 부치는 모바일 카디오 랩을 72시간 부착 후 반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판독을 할까? AI가 해주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리 소개를 해주시네요.

전문성과 편리성, 24시간이 아닌 72시간으로 좀 더 폭 넓은 증상을 찾을 수 있는 정확성까지 갖추어서 놀랍습니다. 검사 소개 등 내용을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경기도회 심전도 판독 교육도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대부분 중소병원이나 작은 의원은 눈에 확 띄는 MI나 Injury 아니곤 사실 한 파트만 맡아 하는 병리사들이 아니라 멀티가 되다 보니 찍기 바쁠 때가 많아 심도가 있진 않거든요.

또한 국가검진에서 혈액검사가 추가 되는 대신 심전도가 빠진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고혈압약을 복용한 환자(저희 가족 케이스)나 당뇨 질환자들의 부정맥을 당뇨로 인해 심장의 이상 신호를 감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선 아주 많습니다. 현재 지금의 의학은 발병을 찾는 게 아니고 예방의학을 하는 게 목적이므로 이러한 웨어러블 시장이 커가는 시점에서 임상병리사의 입지도 함께 커가길 응원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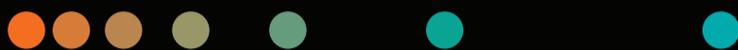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Atellica® CI Analyzer

Integrated Chemistry and Immunoassay Analyzer

siemens-healthineers.com/atellica-ci-analyzer



QR700002239

Small Size. Big Impact.

임상화학 · 면역 검사 통합 솔루션

Atellica® CI Analyzer 장비는 임상화학 · 면역 검사를 동시에 수행하며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스템 기능 및 특징점

- 독립적 운용 형태 임상화학 · 면역 검사 동시 수행 – 검체 로딩 위치 동일
- 검체 저장 공간 최대 120 검체 (60 input / 60 output)
- 시간당 검사 처리
 - 생화학 : 1000 tests/hr (일반화학 600, 전해질 400)
 - 면역 : 120 tests/hr
- 시약 장착
 - 생화학 : 총 70개 포지션 (Single & Dual reagent kit)
 - 면역 : 총 40개 포지션 (주시약 20 / 보조시약 20)
- 응급 검체 처리 검체 로딩 후 1분내 검사 시작
- Atellica® Solution과 동일 시약 플랫폼 백업 기능 효과 및 시약 관리 편리성

새로운 소프트웨어 형태

사용자 편의성이 강화된 유저 인터페이스

- 앱 형태로 검사실별 특화된 메뉴 구성
- 샘플 관리 추적성 강화
- 환자, 칼리브레이션, QC 결과 통합 관리



7월 언론보도

PRESS


의학신문

2025.07.04.

KMI, 임상병리사협회와 협력체계 구축 위한 MOU

Dailymedi

2025.07.11.

이광우 임상병리사협회장, 인구문제 캠페인 동참

세이프탁임즈

2025.07.04.

임상병리사협회·KMI “협회복지 확장”

세이프탁임즈

2025.07.11.

임상병리사협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厚生新報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2025.07.04.

임상병리사협회, KMI한국의학연구소와 MOU 체결

의학신문

2025.07.14.

임상병리사협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매경헬스

2025.07.04.

임상병리사협, KMI와 회원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매경헬스

2025.07.14.

이광우 임상병리사협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Dailymedi

2025.07.06.

임상병리사협-KMI, 상호발전 ‘업무협약’

厚生新報
70년의 역사 의료계 최초의 신문

2025.07.14.

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 임상병리사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팔로우와 친구추가가 큰 힘이 됩니다!

